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 무 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5~2010년 동안 시행된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재정사업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는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과정의 정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의 성과지향적 배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해석된다. 둘째, 미흡등급과 우수등급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각각 부(-)와 정(+)의 영향력을 상당히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우수등급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제시되어 재정사업평가제도가 인센티브보다는 예산삭감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평가결과는 사업특성·재정여건·조직특성 등에 따라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제도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사업평가제도를 예산삭감과 유인수단으로 균형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주제어: 재정사업평가결과, 행정부, 예산변화율, 평가등급

투고일: 2012. 4. 3. 수정일: 2012. 10. 23. 게재 확정일: 2012. 10. 25.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정무경 2012)의 일부를 발췌하여 발전시킨 것입니다.

**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mookyung11@hanmail.net)

I. 서론

1980년대 이후 미국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계속 증가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량적 재정규율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등 예산개혁을 추진하였고 (Blöndal 2003),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과중심 예산제도(budgeting for results), 성과중심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를 널리 활용하였다.¹⁾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 등을 감수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정위기가 더 심각해짐에 따라 예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에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2005년에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성과중심예산제도는 투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나 기대되는 효과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예산운용의 결과와 예산배분을 연결시키는 예산제도를 의미한다(하연섭 2010).²⁾ 성과중심예산제도를 통하여 국민에게 성과목표와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규모 등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많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이남국 2003). 그러나 예산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이고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중심예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

1) 미국은 1993년에 정부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였고, 약 10년간의 제도운영 후 2004년부터 부시행정부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평가제도(PART)를 도입하여 사업별 성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PART를 통한 예산과 성과의 연계보다는 재정사업의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1998년에 그동안의 성과관리제도를 보완한 공공서비스계약제도(Public Service Agreement)를 도입하여 예산사업의 성과를 강화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성과계획서(Statement of Intent)와 산출계획(Output Plan)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성과중심예산제도는 각 국가마다 적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개념정의가 용이하지 않으나 핵심개념은 “예산이 배분되는 정부 프로그램의 목적을 나타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산정하며,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Beard 1992),” “성과정보를 기초로 지출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정의 효율화를 추구하려는 예산제도(Mackay 2007)”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된다(하연섭 2010; Joyce 1999). 성과중심예산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예산과정을 합리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으로부터 정치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Pitisdava & Draper 1984). 성과정보가 예산배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의 예산제도와 달리 성과중심예산제도는 사업별 성과정보, 즉 사업별 평가결과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계량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2005년에 미국의 재정사업평가제도(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를 모델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재정사업평가결과에 따라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고 평가결과의 언론 공개와 국회 보고 등을 통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많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토대로 예산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즉 재정사업평가결과, 재정적 요인(전년도 예산증가율, 예산우선순위), 사업적 요인(사업규모, 사업유형, 사업성격), 조직적 요인(성과측정적합여부),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운영현황과 관련한 제도분석을 시도한다. 제3장에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진행된 재정사업평가결과와 예산배분과의 관계를 다루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재정적 요인, 사업적 요인, 정치적 요인, 조직적 요인 등 비(非)평가적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변수의 정의 및 가설설정, 자료분석 및 회귀모형 설정 등 연구설계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회귀모형을 통하여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사업특성에 따라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에 대한 결론과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한다.

II. 우리나라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운영현황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성과중심예산제도는 크게 재정사업 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의 3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운영현황을 분석한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한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기획예산처 2007; 공동성 외 2007).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핵심은 대상사업, 평가 항목 및 지표, 활용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대상기관은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전체소관 재정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5년 555개(35.2조원), 2006년 577개(35.1조원), 2007년 585개(43.3조원), 2008년 384개(37.1조원), 2009년 346개(24.8조원), 2010년 473개(45.5조원) 등 총 2,920개(221조원)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3)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말하며,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재정사업평가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예산낭비우려가 있는 사업, 향후 재정지출의 급증 우려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박홍업 2009; 박노옥 2008).

4) 동 제도는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에서 제시되는 성과정보가 예산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제고를 위해 연초에 설정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와 업무성과를 비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제공된 성과정보가 모니터링 수준의 정보이기 때문에 예산당국이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표 1]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수 및 예산액 추이

(단위: 개, 조원)

	총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수	2,920	555	577	585	384	346	473
예 산	221.0	35.2	35.1	43.3	37.1	24.8	45.5

자료: 정무경, “우리나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성과정보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2011.

평가지표는 [표 2]에서 제시된 것처럼 계획-관리-성과/환류부문에 대한 10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계획(20점), 관리(30점), 성과/환류(50점) 등 평가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사업계획(10점)과 성과계획의 적정성(10점)을 평가하고, 관리단계에서는 사업관리의 적절성(30점)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성과/환류단계에서는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의 적절성(50점)을 평가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1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에 50점이 배분되어 있어 총 100점 가운데 60점이 성과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각 행정기관은 좋은 평가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에 유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점수화하여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2005~2007년까지는 사업별로 우수(85점 이상), 다소 우수(84~70점), 보통(69~50점), 미흡(50점 미만) 등 4단계로 평가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는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 미흡(50점 미

[표 2] 201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지표

구 분		평가지표
계획 (20)	사업계획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성과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리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3-3.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성과/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2010a.

만) 등 5단계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우 우수,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예산대비 10%를 증액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예산대비 10% 감소, 그리고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예산대비 10% 감소 또는 사업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기획예산처 2007; 기획재정부 2010a).

I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틀

1.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에서는 예산결정과정에 재정사업평가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하여 분석틀에서 사용하게 될 변수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예산결정과 재정사업평가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정적 요인, 사업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배분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한 계량적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2003년 미국에서 재정성과중심주의의 한 수단으로서 재정사업평가제도(PART)를 도입, 운영한 이후 축적된 평가점수나 등급을 중심으로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다(Gruber 2003a, 2003b; GAO 2004a, 2004b; Glimour & Lewis 2006a, 2006b; Moynihan, 2006; Rhee 2009). 이러한 연구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미국 선행연구의 방법론 등을 토대로 한국의 재정사업평가제도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분석이 많이 시도되었다(박노욱 2005, 2008; 공동성 외 2007; 윤기웅 외 2008; 방문규 2008; 박민정 외 2008; 윤성채 외 2009; 정무경 20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여 재정적 요인, 사업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기존연구에서는 재정사업평가결과를 독립변수로, 정부 또는 국회예산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통제변수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가. 재정적 요인

선행연구는 재정적 요인과 관련한 주요변수로서 전년도예산증가율과 사업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내와 미국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예산결정과정에 전년도 예산증가율이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Wildavsky(1961, 1992)가 1960년대에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점증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 이후 예산결정과 재정성과 영향분석을 다루는 최근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독립변수로 설정되었다(Glimour & Lewis 2006a, 2006b; Rhee 2009; 박노옥 2005, 2008; 방문규 2008; 윤성채 외 2009; 정무경 2011).

다음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도 주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국정과제사업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박노옥 2005, 2008; 방문규 2008; 정무경 2011). 국정과제사업은 과거 참여정부나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핵심과제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우선순위가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사업적 요인

선행연구에서는 사업규모(대규모 사업, 중·소규모 사업), 사업유형(직접사업, 간접사업), 사업성격(경제사업, 복지사업) 등을 사업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박노옥 2005, 2008; 방문규 2008; 정무경 2011)에서는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사업규모를 대규모 사업과 중·소규모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규모 사업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나 500억원 기준(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4분위 기준분류(217억원 이상사업) 등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기존연구(박노옥 2005, 2008; 방문규 2008; 윤성채 외 2009; 정무경 2011)에서는 직접사업·간접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라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변화율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직접사업은 투자사업·대형시설구매 등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간접사업은 민간보조사업·지자체보조사업 등 정부가 지자체·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기획재정부 2010). 기존연구에서는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직접사업이 예산배분에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공동성 외 2007; 방문규 2008)

와 함께 간접사업이 예산배분에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윤성채 외 2009)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연구는 사업성격, 즉 경제사업과 복지사업이냐에 따라 예산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박노옥 2005, 2008; 방문규 2008; 정무경 2011). 복지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 등 복지관련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경제관련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다. 조직적 요인

강운호(2007)는 비교사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조직의 성과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지표 계량화 가능하고, 예산과 성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효과가 높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김영록(2010)은 성과측정적합도(Performance Measurement Appropriations, PMA) 개념⁵⁾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조직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간명하고 조직의 규모가 작은 청 단위 기관이 성과측정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강운호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라. 정치적 요인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예산배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 당파성(partisanship)과 국회수정사업을 제시하여 분석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당파성과 예산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연방행정기관의 예산결정이 당파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Bozeman(1977)은 1950~1971년 동안 42개 연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방행정기관의 예산결정이 당파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Glimour and Lewis(2006b)는 2004회계연도의 경우 민주당에 의해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행정기관의 사업평가결과는 공화당 지지사업보다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PART 등급이 공화당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5) 성과측정적합도란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을 최종결과물(outcomes)의 성격을 중심으로 유형성(tangibility)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의 성과지표의 객관성 정도, 결과 측정여부를 평정하여 현재 시점에서 성과관리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업의 성격을 평정하는 것은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고유한 성격이 성과관리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함이고 성과지표를 분석하는 이유는 각 기관의 성과지표가 성과관리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평가된 반면 전통적 민주당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주당 관심사업은 주택과 도시개발부, 노동·건강·인간관련 조직, 환경보호관련 기관, 상업·교육·에너지부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행정기관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하여 당파성을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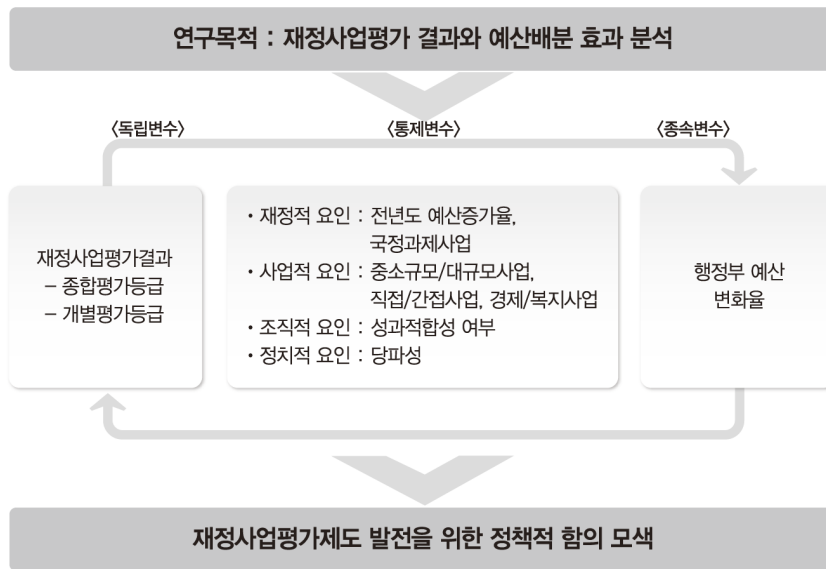
국내연구에서도 당파성이 우리나라 예산심의를 설명하는 데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황운원 1993; 박영희 외 1987; 장문선 외 2002). 국회예산심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은 예산심의지침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당의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면 국회의원들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당론에 따라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 장문선·윤성식(2002)은 25년간의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예산심의과정에서 당파성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정치적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로 국회관심사업 또는 국회수정사업을 제시하였다(방문규 2008; 정무경 2011). 방문규(2008)는 국회관심사업을 ‘국회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업’으로 넓게 정의한 반면 정무경(2011)은 국회수정사업을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논문의 분석 틀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재정성과중심주의는 예산결정과정에 가급적 정치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접근방법이기는 하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예산과정이 정치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통제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사업평가결과뿐만 아니라 비평가적 요인들, 즉 재정적 요인, 사업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다음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시행한다. 첫째, 재정사업평가결과를 종합평가등급과 개별평가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종합평가등급은 평가결과가 예산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변수이고 개별평가등급은 우수 등급, 미흡 등급 등이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변수이다. 둘째, 행정부 예산결정과정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국회 예산결정과 행정부 예산결정과정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부 예산결정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셋째,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재정사업평가결과 이외에 재정적 요인, 사업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기간은 2005~2010년까지 함으로써 전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두 번에 걸친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IV. 연구설계

1.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의 주요변수들은 선행연구와 우리나라의 재정사업평가제도 분석 등을 통해 추출되었다. 기본적으로 독립변수는 평가변수(평가등급)이고 종속변수는 이에 따른 예산변화율이다.

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재정사업평가 매뉴얼(기획재정부 2010a)과 예산안편성지침(기획재정부 2010b) 등에 따르면 사업별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사업은 예산삭감 또는 사업폐지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변화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재정사업평가결과 우수등급사업에 대해서는 전년예산대비 10%를 증액하고 미흡등급사업에 대해서는 전년예산대비 10% 감소, 그리고 매우 미흡등급사업에 대해서는 전년예산대비 10% 감소 또는 사업폐지를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재정사업평가결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정사업평가결과를 종합평가등급과 개별평가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정무경 2011). 개별평가등급은 재정사업평가제도가 제공하는 개별사업별 평가결과(미흡, 보통, 다소 우수, 우수)를 의미하고 종합평가등급은 이들 개별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등급을 의미한다. 종합평가등급은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변수인 반면 개별평가등급은 재정사업평가등급이 개별평가등급(미흡, 보통, 다소 우수, 우수)별로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이다.

종속변수로 행정부 예산변화율을 설정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행정부 예산변화율외에 국회예산변화율과 부처예산변화율을 설정하기도 하나(박노옥 2008; 방문규 2008) 본 연구의 목적이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임을 감안하여 종속변수로 행정부 예산변화율만을 설정한다. 행정부 예산변화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예산안의 변화율⁶⁾을 의미한다.

나. 통제변수

예산배분과정의 합리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배분과정은 정치적, 재정적, 관료적 우선 순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Bozeman 1977; LeLoup et al. 1988)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은 예산배분과정에서 재정사업평가결과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Moynihan 2008). 재정사업평가제도하에서도 대부분의 정부예산은 예산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다양한 정치행위자의 협상과정에 의해 배분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의 정치적, 재정적 성격과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Moynihan 2008), 본 연구에서는 예산배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사업적, 조직적, 정치적 요인 등 비평가적 요인을 추가적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첫째, 재정적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로 기존연구결과(박노욱 2005, 2008; 방문규 2008; 정무경 2011)를 토대로 전년도 예산증가율과 국정과제사업을 설정한다. 예산결정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년에 추진된 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증가율은 재정적 요인을 설명하는 주요변수이다. 또한 국정과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밀접하게 작용하고 재정부의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⁷⁾

둘째, 사업적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로 사업규모, 사업유형, 사업성격을 제시하여 분석한다. 대규모 사업과 중·소규모 사업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성 외(2007)와 해외 선행연구 등의 방법론(Glimour & Lewis 2006a, 2006b; Rhee 2009)을 감안하여 4분위개념에 따라 정의한다. 사업유형은 선행연구(방문규 2008)에서 제시된 것처럼 투자사업 등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직접사업과 민간 보조사업·지자체보조사업 등과 같은 간접사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사업성격은 경제사업과 복지사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선행연구 방법론을 참조하여(방문규 2008)

6) (정부예산안 규모-전년도 예산액)/전년도 예산액

7) 국정과제사업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요인으로 분류한다.

경제사업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경제관련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노동부 등 복지관련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셋째, 조직적 요인은 김영록(2010)이 제시한 행정기관별 성과측정적합도(PMA)에 따라 성과측정적합기관($0.5 \leq PMA \leq 1$),⁸⁾ 성과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0.0 \leq PMA < 0.2$)⁹⁾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요인으로 당파성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재정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당파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느냐가 국내외 학계에서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미국은 행정기관수준에서 측정되고 있는데, 주택과 도시개발·노동·건강·복지·환경·교육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민주당 사업으로,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공화당 사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Glimour & Lewis 2006a, 2006b; Rhee 2009).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방법론을 양당정치가 미국처럼 발달되지 못한 우리나라 정치여건에서 사용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누가 언제 차지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당파성이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분석했듯이 국회예산심의는 다수당 지도부의 예산심의지침에 따라 예산심의방향이 나 처리기한, 처리방식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수당 여부를 당파성 지표로 사용한다.

2. 가설설정

가. 종합분석

재정사업평가등급이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합평가등급(Aggregate PART Ratings)과 개별평가등급(미흡, 보통, 다소 우수, 우수)을 사용한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재정사업평가등급은 예산을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사업평가등급과 예산변화율은 정(+)의 관계가 기대된다.

8) 주로 해양경찰청(1.0), 기상청(0.90), 국토해양부(0.81), 관세청(0.75), 조달청(0.63), 농림수산식품부(0.63), 지식경제부(0.61), 식품의약품안전청(0.57), 산림청(0.50)에 해당된다.

9) 주로 노동부(0.17), 법무부(0.17), 여성부(0.17), 통계청(0.15), 행정안전부(0.15), 농촌진흥청(0.13), 경찰청(0.08), 국가보훈처(0.07), 기획재정부(0.00), 외교통상부(0.00), 통일부(0.00)가 해당된다.

가설 1: 종합평가등급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행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수등급은 성과우수사업에 대한 예산변화율에

정(+)의 영향을 보이는 반면 미흡등급은 성과미흡사업 예산변화율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사업특성에 따른 영향분석

본 연구에서는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재정사업평가등급 이외에 재정적 요인, 사업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는데, 각 통제변수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재정사업평가등급이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한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첫째, 재정사업평가등급이 국정과제사업이나 일반사업이나에 따라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정과제사업은 재원배분우선순위가 높고 정치적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예산성과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예산배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사업은 국정과제사업보다 재정사업평가결과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가설 3: 종합평가등급은 국정과제사업보다 일반사업의 예산변화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재정사업평가등급은 사업의 규모가 대규모이나 중·소규모이나에 따라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 필요성이나 사업공정에 따른 필수수요의 예산반영 필요성 등 때문에 중·소규모 사업보다 재정사업평가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종합평가등급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의 예산변화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재정사업평가등급은 직접사업이나 간접사업이나에 따라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접사업은 통상 사업추진구조가 명확하고 단순하여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아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

하는 간접사업보다 사업평가결과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가설 5: 종합평가등급은 간접사업보다는 직접사업의 예산변화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재정사업평가등급은 경제사업 또는 복지사업이냐에 따라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예산사업은 대부분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등 경직성 예산인 반면 경제예산사업은 경기변동·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라 예산이 재량적으로 변화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예산배분 결정과정에서 복지예산사업보다는 경제예산사업이 재정사업평가등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6: 종합평가등급은 복지사업보다 경제사업 예산변화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재정사업평가등급은 행정조직이 성과측정에 적합한 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운호(2007)와 김영록(201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과적합도가 높은 행정기관이 그렇지 못한 행정기관보다 재정사업평가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7: 종합평가등급은 성과측정 비적합기관보다 성과측정 적합기관의 예산변화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평가등급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방식에 따라 국회 예산변화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기간(2005~2007)은 재정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예상했던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기간(2008~2010)은 성과관리제도가 약 3년간의 시행기

간을 거쳐 어느 정도 정착되어 효과가 발휘되는 시기로 기대되어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가설 8: 종합평가등급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시기보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시기의 국회 예산변화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기술적 통계분석

변 수	단위	정 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표준 편차	N
재정사업 평가등급	등급	사업별 재정사업 평가등급 (종합평가등급, 개별평가등급)	4.0	1.0	2.1	0.7	2,378
행정부예산 변화율	%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변화율	100.0	-100.0	0.4	27.5	2,378
전년도 예산변화율	%	전년대비 사업별 예산변화율	100.0	-99.9	4.8	30.0	2,346
국정과제 사업	억원	선가공약 등으로 제시되어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32,592.0	2.0	1,863.6	4,542.5	209
대규모 사업	억원	사업규모를 4분위로 구분하여 4분 위(3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86,421.0	181.0	2,829.6	7,426.4	663
중·소규모 사업	억원	사업규모를 4분위로 구분할 경우 1~3분위 해당 사업	860.5	1.0	77.9	87.8	1,715
직접사업	억원	SOC 투자, 장비구매 등 정부가 직 접 수행하는 사업	86,421.0	1.0	961.2	5,531.5	859
간접사업	억원	자치단체·민간단체 보조 등 간접적 으로 수행하는 사업	37,908.0	1.6	779.4	3,023.0	1,519
경제사업	억원	국토해양부 등 경제관련 행정기관에 서 시행하는 사업	34,218.0	1.0	1,012.3	2,862.6	856
복지사업	억원	보건복지부 등 복지관련 행정기관에 서 시행하는 사업	76,745.0	2.0	887.2	5,413.1	479
성과측정 적합기관	억원	성과측정적합도가 0.5 이상, 1 이하 인 사업($0.5 \leq PMA \leq 1$)	7,812.0	2.0	555.9	1,034.6	591
성과측정 비적합기관	억원	성과측정적합도가 0.2 미만인 사업 ($0.0 \leq PMA < 0.2$)	86,421.0	2.0	729.9	5,232.3	635
당파성 (민주당 집권기)	억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기간 (2005~2007년)	67,573.0	1.0	725.4	3,514.6	1,396
당파성 (한나라당 집권기)	억원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기간 (2008~2010년)	86,421.0	1.2	1,015.2	4,827.7	982

3.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2005~2010년 동안 총 2,920개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사용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 이상치(outlier)를 적절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¹⁰⁾ 본 연구에서는 Rhee(2009)의 방법론을 따라 예산변화율이 100% 증가 또는 감소하는 사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결과 분석대상 사업수는 2,920개에서 542개 사업(완료사업 119개, 과도한 증감사업 423개)이 제외되어 2,378개 사업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평가등급도 조정하였다. 2005~2007년까지는 4등급(미흡, 보통, 다소 우수, 우수)으로 평가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5등급(아주 미흡, 미흡, 보통, 우수, 아주 우수)으로 좀더 세분화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 2008~2010년 평가사업의 평가등급을 4등급으로 변경(아주 미흡과 미흡등급 → 미흡등급, 우수등급 → 다수 우수등급, 매우 우수등급 → 우수등급)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업평가결과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회귀모형에서는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에 맞게 분석하기 위하여 재정사업평가등급 이외에 재정적 요인, 사업적 특성, 조직특성, 정치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BD_{jt+1} = \alpha + \beta_1 PG_{jt} + \beta_2 PB_{jt} + \beta_3 NP_{jt} + \beta_4 PS_{jt} + \beta_5 PT_{jt} + \beta_6 PC_{jt} + \beta_7 OC_{jt} + \beta_8 PA_{jt} + \epsilon$$

[j는 행정부, t는 회계연도, BD(Budget)는 예산증가율, PG(Project Grade)는 재정사업 평가등급, PB(Previous Budget)는 전년도 예산증가율, NP(National Project)는 국정과제사업, PS(Project Size)는 사업규모, PT(Project Type)는 사업유형, PC(Project Characteristics)는 사업성격, OC(Organization Characteristics)는 조직특성, PA(Partisanshp)는 당파성을 의미한다]

10) Glimour and Lewis(2006a, b)는 2004회계연도 분석에서 50%를 증가한 사업을 제외하였고, 2005회계연도 분석에서 100%를 증가한 사업을 제외하였다. 박노옥(2008)은 예산이 100%이상 증가한 사업, 방문규(2008)는 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업, 회계이관사업, 법적외부 지급사업, 정책판단사업 등을 제외하였다.

V. 분석결과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예비분석

[표 4]는 재정사업 평가등급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재정사업 평가대상 사업 2,920개에서 통계 이상치를 제외한 2,378개 분석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평균평가등급은 2.08이고 2005년 2.13등급에서 2010년 1.80등급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08년부터 재정사업평가제도가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평가등급에 대한 기술적 분석

(단위: 개, 등급)

회계연도	사업수	평 균	Std. Dev.	Min.	Max.
2005	458	2.13	0.71	1	4
2006	472	2.16	0.67	1	4
2007	466	2.45	0.76	1	4
2008	316	1.88	0.71	1	4
2009	283	1.82	0.53	1	4
2010	383	1.80	0.51	1	3
합 계	2,378	2.08	0.70	1	4

자료: 정무경, “우리나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성과정보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2011.

[표 5] 평가점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단위: 개, 점수)

회계연도	사업수	평균	Std. Dev.	Min.	Max.
2005	458	60.0	12.7	24.0	95.0
2006	472	59.8	12.9	16.0	97.0
2007	466	66.5	12.7	33.0	100.0
2008	316	66.4	11.3	37.0	96.0
2009	283	66.0	10.1	32.0	91.0
2010	383	62.7	8.3	31.0	86.0
합 계	2,378	63.2	12.0	16.0	100.0

자료: 정무경, “우리나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성과정보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2011.

[표 6] 2005~2010년 재정사업 평가단계별 평가점수현황

(단위: 개, 점수)

회계연도	사업수	총점	계획(30)	관리(20)	성과(50)
2005	555	60.2	23.1	15.2	22.0
2006	577	59.9	22.9	14.7	22.2
2007	585	66.0	23.4	15.5	27.1
2008	384	66.7	22.6	14.4	29.5
2009	346	65.9	24.7	13.6	27.8
2010	473	62.5	23.5	16.6	23.9
합계	2,920	63.2	23.3	15.1	25.0

자료: 정무경, “우리나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성과정보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2011.

[표 5]는 재정사업 평가대상사업 2,920개에서 이상치를 제외한 2,378개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평가점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평균평가점수는 63.2점이고 2005년 60.0점에서 2007년 66.5점으로 상승했다가 2010년 62.7점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7~2009년 기간 동안 재정사업평가점수가 평균보다 크게 높아 재정사업평가제도가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6]은 재정사업의 계획, 관리, 성과 등 재정사업 추진단계별 평가결과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지난 6년 동안(2005~2010년) 평가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 63.2점이고 계획단계는 30점 만점에 23.3점, 관리단계는 20점 만점에 15.1점, 성과단계는 50점 만점에 25.0점을 보여준다. 계획단계와 관리단계의 평가점수비중이 성과단계의 평가점수비중보다 높게 제시되어 좀더 성과관리지향적으로 제도가 운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2. 회귀분석 결과

가.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표 7]은 종합평가등급(Aggregate PART Ratings)이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종합평가등급이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1에서 종합평가등급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8.597의

[표 7]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종합평가등급	개별평가등급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 수		-18.877*** (1.891)	0.680 (1.332)
종합평가등급		8.597*** (0.835)	-
개별평가등급	미흡	—	-15.938*** (1.537)
	다소 우수	—	6.847*** (1.614)
	우수	—	5.658** (2.658)
재정적 요인	전년도 예산증가율	0.058*** (0.018)	0.054*** (0.018)
	국정과제사업	1.162 (1.987)	1.516 (1.975)
사업적 요인	사업규모 (대규모 사업)	3.889*** (1.268)	3.326*** (1.262)
	사업유형 (직접 사업)	2.093* (1.173)	2.027* (1.164)
	사업성격1 (복지)	2.612* (1.506)	2.112 (1.497)
	사업성격2 (경제)	-0.252 (1.418)	-0.274 (1.408)
조직적 요인	성과측정 적합 기관	-0.964 (1.493)	-0.752 (1.482)
정치적 요인	당파성 (민주당)	-1.596 (1.171)	-1.807 (1.163)
N		2,346	2,346
R2		0.062	0.077
VIF		1.180	1.160

주: 1) *는 유의수준 0.1, **는 유의수준 0.05, ***는 유의수준 0.01을 의미함.

2)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 이하로 나타남으로서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종합분석결과를 볼 때 재정사업평가제도가 재정성과정보를 토대로 우리나라 예산배분과정이 성과지향적으로 운용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007년도 평가대상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내선행연구(윤성채 외 2009)에서도 PART점수가 2008년도 예산변화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동 분석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지지해준다고 볼 수 있다. 종합평가등급을 사용한 미국의 선행연구(Rhee 2009)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종합평가등급이 의회의 예산배분과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설 1을 채택한다.

또한 [표 7]은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등급 등 개별평가등급이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미흡등급사업과 다소 우수등급사업의 경우 유의수준 0.01에서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각각 -15.948, 6.847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수등급사업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5.658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미흡등급이나 다소 우수 등급에 비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설 2를 채택한다. 개별평가등급에 따른 영향분석은 재정사업 평가시스템이 성과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성과미흡사업에 대한 패널티 제도로 더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재정사업평가제도가 예산낭비사업 또는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수단으로 사용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너무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활용한다면 예산당국과 행정기관 사이에 제한된 자원을 더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속임수(strategic representative)’가 발생할 수 있어(Jones & Euske 1991) 성과제도가 왜곡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특성별로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표 8]은 재정적 요인(국정과제사업 vs 일반사업), 사업적 요인(사업규모, 사업유형, 사업성격), 조직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통제변수별로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먼저, [표 8]은 전체 평가대상사업을 국정과제사업과 일반사업(국정과제가 아닌 사업)으로 구분할 경우 종합평가등급이 그룹별 사업

의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종합평가등급이 한 단계 변화할 때 유의수준 0.01에서 국정과제사업 예산변화율에 10.874, 일반사업 예산변화율에 8.394의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가설에서는 일반사업이 국정과제사업보다 재정사업평가결과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반대의 결과가 제시되어 가설 3을 기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정과제사업은 대통령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점, 국정과제사업은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어차피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발생할 수 있는 평가 관대화 경향 등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둘째, [표 8]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이 예산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종합평가등급의 변화에 따라 유의수준 0.01에서 대규모 사업의 예산변화율에 6.910, 중소기업의 예산변화율에 9.036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종합평가등급이 대규모 사업보다는 중소기업 예산배분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를 채택한다. 이는 대규모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는데,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일단 착수된 사업은 예정된 공정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고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표 8]은 직접사업과 간접사업 등 사업의 유형에 따라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종합평가등급의 변화에 따라 직접사업의 예산변화율에 8.656, 간접사업 예산변화율에 8.517의 영향력을 보여주어 종합평가등급이 간접사업보다 직접사업의 예산배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를 채택한다. 이는 간접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이해관계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계되어 예산확보와 집행단계가 복잡하다는 점이 예산편성과 집행이 단순한 직접사업에 비해 사업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넷째, [표 8]은 사업의 성격이 복지사업 또는 경제사업 여부에 따라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종합평가등급의 변화에 따라 유의수준 0.01에서 경제사업 예산변화율에 8.874, 복지사업 예산변화율에 12.667의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평가등급이 경제사업보다는 복지사업에

산의 증가에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가설 6은 기각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들어 급격히 확대되는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복지예산을 성과지향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해석된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사업과 복지사업의 정의 문제, 왜곡이 가능한 데이터의 필터링 문제 등 연구방법론의 개선이 향후 연구과제로 대두된다.

다섯째, [표 8]은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성과측정에 적합한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이냐에 따라 재정사업평가결과와 예산배분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01에서 종합평가등급이 성과측정이 적합한 기관의 예산변화율에 9.979, 그렇지 않은 기관의 예산변화율에 9.477의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어 가설 7을 채택한다. 선행 연구에서 강운호(2007)와 김영록(2009)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의 특성을 감안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가설검증결과는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성과측정에 적합한 행정기관은 그렇지 못한 행정기관에 비해 조직의 성과목표가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해 성과정보와 예산반영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표 8]은 당파성에 따라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종합평가등급의 변화에 따라 유의수준 0.01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기간(2005~2007)의 예산변화율에 7.393,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기간(2008~2010)의 예산변화율에 11.178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종합평가등급이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기간의 예산변화율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어 가설 8을 채택한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기간은 재정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정부기관의 운영과정에 정착되지 못한 반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기간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예산의 규모와 원칙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사업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데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표 8] 통제변수별로 종합평가등급이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국정과제 사업	일반사업	대규모 사업	중·소규모 사업	직접사업	간접사업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 수		-27.59*** (5.926)	-18.01*** (1.996)	-8.544** (3.367)	-20.68*** (2.263)	-14.36*** (3.044)	-20.43*** (2.371)
종합평가등급		10.874*** (2.451)	8.394*** (0.887)	6.910*** (1.441)	9.036*** (1.014)	8.656*** (1.311)	8.517*** (1.086)
재정적 요인	전년도 예산증가율	0.097* (0.057)	0.054*** (0.019)	0.064* (0.035)	0.058*** (0.022)	0.028 (0.028)	0.079*** (0.024)
	국정과제사업	— —	— —	1,860 (2,529)	0.285 (2.873)	0.038 (3.929)	1,470 (2,312)
사업적 요인	사업규모 (대규모)	6.156* (3.411)	3,589*** (1,360)	— —	— —	2,947 (2,062)	4,592*** (1,612)
	사업유형 (직접)	1,195 (3,841)	2,154* (1,233)	0,418 (1,950)	2,625* (1,445)	— —	— —
	사업성격1 (복지)	9,379** (3,957)	1,733 (1,625)	1,645 (2,905)	3,065* (1,767)	1,606 (2,878)	3,347* (1,793)
	사업성격2 (경제)	-0.228 (4,781)	-0.226 (1,489)	-4,901** (2,226)	1,748 (1,789)	-2,085 (2,058)	2,020 (2,017)
조직적 요인	성과측정 적합기관	4,411 (5,132)	-1,355 (1,562)	-1,050 (2,329)	-0,881 (1,890)	0,189 (2,298)	-2,830 (2,069)
정치적 요인	당파성 (민주당)	-0.532 (3,528)	-1,801 (1,240)	-1,388 (1,927)	-1,500 (1,445)	-4,136** (1,947)	-0,031 (1,472)
N		207	2,139	655	1,691	852	1,494
R2		0.155	0.056	0.061	0.059	0.056	0.065
VIF		1.300	1.180	1.210	1.170	1.090	1.300

주: 1) *는 유의수준 0.1, **는 유의수준 0.05, ***는 유의수준 0.01을 의미함.

2) VIF 값이 10 이하로 나타남으로서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8] 통제변수별로 종합평가등급이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계속)

		경제사업	복지사업	성과측정 적합기관	성과측정 비적합 기관	민주당 다수당 (국회예산 증가율)	한나라당 다수당 (국회예산 증가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 수		-15.81*** (3.248)	-26.68*** (4.243)	-23.06*** (4.382)	-23.07*** (3.904)	-17.47*** (2.709)	-22.74*** (3.086)
종합평가등급		8.874*** (1.319)	12.667*** (2.208)	9.979*** (1.495)	7.294*** (1.589)	7.393*** (1.080)	11.178*** (1.485)
재정적 요인	전년도 예산증가율	0.084*** (0.030)	0.028 (0.038)	0.115*** (0.035)	0.060* (0.035)	0.072*** (0.025)	0.051* (0.029)
	국정과제사업	1.832 (3.582)	4.635 (3.293)	5.089 (4.334)	3.112 (3.164)	1.466 (3.033)	1.270 (2.790)
사업적 요인	사업규모 (대규모)	-0.056 (1.931)	5.229* (3.097)	0.877 (2.245)	4.886* (2.528)	4.018** (1.826)	6.039*** (1.922)
	사업유형 (직접)	0.334 (2.053)	1.078 (2.932)	2.774 (2.435)	3.149 (2.246)	0.377 (1.626)	3.946** (1.858)
	사업성격1 (복지)	— —	— —	3.248 (6.040)	4.613** (2.350)	-1.937 (1.979)	2.562 (2.221)
	사업성격2 (경제)	— —	— —	0.242 (2.898)	5.777 (3.831)	3.910* (2.123)	-1.318 (2.317)
조직적 요인	성과측정 적합기관	-1.927 (1.931)	2.596 (5.968)	— —	— —	2.052 (2.126)	-6.489*** (2.268)
정치적 요인	당파성 (민주당)	-4.076** (1.944)	1.919 (2.476)	-1.356 (2.209)	4.120* (2.215)	— —	— —
	국회관심사업					1.082 (2.003)	1.752 (1.791)
N		830	478	576	629	1,364	982
R2		0.070	0.102	0.116	0.072	0.051	0.095
VIF		1.080	1.100	1.160	1.130	1.150	1.180

주: 1) *는 유의수준 0.1, **는 유의수준 0.05, ***는 유의수준 0.01을 의미함.

2) VIF 값이 10 이하로 나타남으로서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VI. 결론 및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재정사업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는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2005~2010) 운영된 재정사업평가제도가 성과중심으로 예산제도가 운영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예산과정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재정사업평가결과)만 가지고 예산을 결정할 수 없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이 성과지향적으로 배분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해석된다. 둘째, 미흡·우수 등 개별평가등급이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미흡등급과 우수등급은 유의수준 0.01에서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각각 부(-)와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우수등급은 유의수준 0.05에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성과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감액 등 패널티를, 성과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증액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설계 취지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다만 매우 우수등급사업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특성별 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일반사업보다는 국정과제사업에, 대규모사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간접사업보다는 직접사업에, 경제사업보다는 복지사업에, 성과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보다는 적합한 기관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기간보다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기간에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정사업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예산배분과정이 성과지향적으로 운영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제도를 예산배분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배분과정에서 성과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재정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과 성과측정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재정사업 평가에 유리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재정사업 평가대상사업만을 중심으로 성과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성과관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사업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재정당국은 성과지표의 설정과 측정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특히 미흡·우수 등 개별평가등급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미흡등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등 패널티가 엄격하게 부과되는 반면 우수등급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결과가 제시되어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우수등급을 받기위해 측정하기 쉬운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등 평가시스템을 왜곡할 유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당국은 재정사업평가결과와 예산배분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패널티와 인센티브 수단으로서 균형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사업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요인·사업적 요인·조직적 요인·정치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재정사업평가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정사업평가결과는 일반사업보다는 재정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국경과제사업, 대규모사업보다는 중·소규모사업, 경제사업보다는 복지사업, 성과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보다는 적합한 기관 등이 예산변화율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이러한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미시적 예산결정에 중점을 두고 재정사업평가결과가 사업별 예산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였지만 분야별 재원우선순위와 지출한도(budget ceiling) 설정 등 거시적 예산결정에 재정사업평가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정하였는데 분석대상을 국회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론과 관련해서도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앞으로 분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제변수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자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감안하여 설문조사나 심층 인터뷰 등 정성적 연구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운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평가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4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2007, 291~323쪽.
- 공동성·방문규·윤기웅,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4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7, pp.27-56쪽
- 기획예산처, 「200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기획예산처, 2007.
- 기획재정부,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기획재정부, 2010a.
- _____, 「2011년도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 2010b.
- 김영록,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정부부처별 적합성 분석: 성과측정 적합도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8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169~192쪽.
- 김종희, “국회예산심의과정에 관한 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 박노옥,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성과관리제도 도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5.
- _____,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 _____,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예결산 분석: 우리나라 성과관리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연계문제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제146호, 한국조세연구원, 2008, 6~18쪽.
- 박홍엽,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09.
- 방문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방문규·윤기웅, “2006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평가결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6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5, 409~424쪽.
- 윤기웅·공동성,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 2005~2007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한국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2008, 89~113쪽.
- 윤성채·임준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재정사업에 대한 PART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2009, 1247~1269쪽.
- 이남국,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 장문신·윤성식, “국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2호, 한국정책학회, 2002.

- 정무경, “우리나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성과정보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행정연구원, 2011.
- _____, “예산결정과 재정성과정보 영향분석—한국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 황윤원, “우리나라 예산결정 변수분석,”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1993.
- Blöndal, Jón, “Budgeting Reform in OECD Member Countries: Common Trend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2 no.4, OECD, 2003, pp.7-26.
- Bozeman, Barry, “The Effect of Economic and Partisan Change on Federal Appropriations,”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University of Utah, 1977.
- Government Accounting Office (GAO), “Performance Budgeting: OMB’s Performance Rating Tool Presen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Evaluating Program Performance,”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GAO-04-439T, GAO, 2004a.
- _____, “Performance Budgeting: Observations on the Use of OMB’s Program Assessment Rating for the Fiscal Year 2004 Budget,”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GAO-04-174, GAO, 2004b.
- Glimour, John B. and Lewis, D. E., “Does Performance Budgeting Work? An Examination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s PART Scor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66 no.5,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2006a. pp.742-752
- _____, “Assessing Performance Budgeting at OMB: The Influence of Politics, Performance, and Program Siz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16 no.2, Oxford University Press, 2006b, pp.169-186
- Gruber, Amelia, “OMB Ratings Have Little Impact on Hill Budget Decisions,” *Government Executive*, June 13, 2003. <<http://www.govexec.com/management/2003/06/omb-ratings-have-little-impact-on-hill-budget-decisions/14324/>>
- _____, “OMB to Brief appropriators about Federal Program Ratings,” July 2, 2003. <<http://www.govexec.com/management/2003/07/omb-to-brief-appropriators-about-federal-program-ratings/14461/>>
- Joyce, Phillip G., “Using Performance Measures for Budgeting and Performance Funding in the States: A Status Assessment,” *Public Budgeting & Finance*, vol.19 no.1, Wiley-Blackwell, 1999.
- LeLoup, Lance T, “From Micro-budgeting to Macro Evolution in Theory and Practice in Rubin, I ed Albany,” *New Direction in Budget Theor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7.

- Mackey, Keith, *How to Build M&E System to Support Better Government*, The World Bank, 2007.
- Moynihan, Donald P., "Managing for Results in State Government: Evaluating a Decade of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66,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2006.
- Pitsvada, Bernard T. and Frank D. Draper, "Making Sense of the Federal Budget the Old Fashioned Way-Incrementall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4 no.5,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1984, pp.401-407.
- Rhee, Dong-Young, "Performance-based Budgeting: Reality or Rhetoric?," Doctoral Disserta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09.
- Shick, Allen, *The Federal Budget: Politics, Policy, Process*, The Brookings Institute, 2000.
- Wildavsky, Aron, "Political Implications of Budgetary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21, pp.183-190, In Hyde, Albert C(ed.), *Government Budgeting: Theory, Process and Politics*, 2nd ed., Brooks/Cole, 1992, pp.39-45.
- _____, *Budgeting: A Comparative Theory of Budgetary Process*, Transaction Publishers, 1992.

An Impact Analysis of the K-PART on the Administration's Budget Process

Jung, Moo-Kyu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K-PART (Korean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s) system as measured by performance ratings on the Administration's budget process during 2005-2010.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aggregated ratings of K-PART has positively influenced the Administration's budget decision on individual program, which implies despite the political nature of the budget process, K-PART system has a substantial impact on the Administration's budget change rate. Second, the K-PART has influenced programs rated as ineffective more than those rated as effective. This implies that the K-PART system has been operated as a means to cut back the budget rather than as an incentive to increase the budget over the six years. Finally, the results confirm that because the impacts of K-PART vary depending upon the fiscal factor, program factor, organization factor and political factor, the K-PART system needs to be operated taking these impacts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based budgeting system, the designing of a new measurement system is importa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rograms and organization and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wards balancing the contradictory function mentioned above.

□ Keywords: K-PART, Administration budget change rate, Evaluation grade